현불 논단

해상 실크로드와 가야불교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 정부 가야사 재조명 노력에
'가야불교' 관심 높아지는 상황

육로 통한 불교 전래 일반 인식
한반도 끝 가야까지 적용은 의문
해상통한 전래가 더 신빙성 있어

석굴 등 흔적 남은 육로와는 달리
해상을 통한 교류, 유적 남지않아
가야 연구 '해상 실크로드' 추가를

현 정부 들어 가야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심에 비해서 가야불교의 실체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불교의 한반도 전래를 북방으로부터 육로를 통한 것으로 보려는 고정된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도로부터 동아시아로의 불교 전래를 파미르고원을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생각해왔다. 현대의 실증주의적 학문풍토에서 육상 실크로드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고대 무역루트의 주변에 산재한 도시유적과 석굴사원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상품과 문화와 종교가 이동한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가 동아시아와 만났고 수없이 많은 상품들의 교류와 함께 불교가 한반도에까지 전래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가야 문화권에까지도 이러한 공식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의 서쪽 변경에 있었던 월지가 인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개척했다.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이집트의 홍해 연안과 남인도는 향신료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인도양은 무역풍으로 알려진 몬순 계절풍이 부는 곳으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을 달라진다. 주로 4~9월 사이에는 바람이 남서쪽에서 동북쪽으로 불고, 11~2월 사이에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것이다. 계절풍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인들은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상품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인도 남동부와 스리랑카를 출발한 무역선들은 몬순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남부의 광저우를 향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불교는 해상실크로드 최고의 상품으로서 몬순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전래됐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는 이러한 해상 무역루트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상 실크로드는 육상 실크로드와 달리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류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이 60세에 중국을 출발하여 인도를 순례하고 413년 돌아온 법현의 귀국 항로가 〈불국기〉에 남아있다. 그는 동인도의 갠지스강 하구에서 걸어서 2년이 걸리는 스리랑카에 무역선을 타고 몬순 계절풍과 함께 2주만에 도착했다. 약 2년 정도 머무른 후 다시 무역선을 타고 3달 걸려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또는 자바의 작은 힌두왕국에 도착했다. 그는 즉시 다른 무역선에 올랐고 약 3달 정도 걸려서 중국 산동성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일 법현이 탄 무역선이 방향을 조금만 동쪽으로 잡았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 배는 한반도 남단에 도착했을 것이다. 당시 한반도 남단의 가야는 철기를 만드는 중간원료인 철정을 낙랑·대방·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부유한 해상무역왕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는 가야가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로서 해상 무역루트를 통해 남방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가야불교의 원형탐색에 해상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남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해양문화 속에서 불교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봐야할 때가 온 것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설법, 불교의 생명줄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집안은 절손(絶孫)이 되어 가문은 문을 닫는다. 불교교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 포교하여 불자가 생겨나야지 불법이 계승 발전할 수 있다. 전법 포교가 교단을 유지 발전시키는 제일 요건이다.

포교 방법은 연설로 하는 강연 설법, 경전을 번역하거나 해설하여 유포하는 문서포교, 복지 자선사업 등이 있으나 연설로 하는 강연 설법이 중심이다.

인간은 언어문자를 발명하여 상호 의사를 소통하고, 인간이 이룩한 문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여 계승 발전시켜 위대한 인간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로 언어문자는 인간이 이룩한 문화의 금자탑이다. 전교 설법은 언어문자를 통해서 한다.

이웃종교에서는 입교해서 3일만 돼도 입만 열면 자신들의 종교의 말씀을 전도한다.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다.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최초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부루나를 위시한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 부처님의 전법 교시(敎示)를 받들어 오늘날 불교가 세계종교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설법은 불교교단의 존망성쇠를 가름하는 생명줄이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세력이 부진한 것은 포교가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고, 포교가 성행하면 세력이 늘고 세력이 늘면 사람이 늘어나서 포교가 쉽게 이뤄진다"고 하였다.

전법선언서 부처님 전법교시
현재 세계 종교 발전 기틀돼

만해는 "선(禪)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고, 교(敎)는 중생 교화를 위한 길이다"고 하였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요, 깨달음과 중생교화가 둘이 아니다. 어찌 우리 불교는 깨달음을 위한 안거(安居)는 길고, 전법 교화는 소홀한 것인가.

높은 산을 등산할 때 먼저 등반했던 사람의 축적된 정보나 정확한 안내는 생명을 지켜주듯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법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학대학에서는 학과나 교육과정에서 '설교학', '목회학', '목회상담학' 등 과목이 중심인데, 우리는 '설법학', '포교학'의 명칭도 없고, 교육과정도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가 불교대학을 다닐 때 불교학과 법우들과 '부루나 전철 전법단'을 조직하여 동대문역에서 구로역까지 전철 안에서 실제로 설법을 연수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전법 경험의 원력과 뚝심은 삼십칠 년 동안 불교종립학교에서 교법사,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

천학비재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불교의 설법론'에 대하여 집필해보려는 원력을 세운 것은 그동안 입은 불은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법 현장에서 설법을 하는 스님, 재가법사, 일반 불자들이 청법(聽法) 대중에게 알기 쉽고, 유익하고 흥미롭게 설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하여 하나의 '설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신행혁신, 종단 적극 관심을…

조계종 포교원 제7대 집행부가 2016년 구성 이후 4년차를 맞았다. 1월 22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아젠다 제시보다 7대 포교원 출범과 동시에 내걸은 '신행혁신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실천하는 등 기존 종책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7대 포교원이 기치로 내건 '신행혁신운동'은 기복 중심의 사찰문화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며 실천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실천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다.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이란 5대 수행법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안내서적 등을 만들어 배포 중에 있지만 종단 주요인사들 등 포교원의 영향이 미친 곳 일부에서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불교 신행문화를 바꾸는 것이 현재는 포교원만의 임무로 한정되어 있다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포교원이 아무리 신행혁신을 부르짖고 사찰을 다니며 신행혁신을 설하는 법회를 열어도 사찰의 주요 스님들에서 그래도 기도문화를 없앨 순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신행혁신과 같은 불교 전반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포교원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포교원 내에서도 현 집행부 이후 집행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포교원에서는 '5대 결사' '환희와 감동의 포교' 등 각 집행부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5년마다 신행과 포교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거시적인 차원의 포교, 신행변화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양질의 '불교학술상' 확대되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문화·학술단체가 새롭게 창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21세기 불교포럼은 오는 2월 22일 경주 경북신문 씨에로 빌딩 4층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21세기 불교포럼은 핵심사업은 불교 대중교육과 학술단체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기적인 포럼과 대중강연으로 지역사회와 인문학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국제적 역량을 갖춘 불교 인재 발굴·육성도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조성·운용되는 'KABS 무진국제학술상'이다. 불교학연구회와 연계돼 진행되는 무진국제학술상은 영어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3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박사학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세계의 모든 불교학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열린 학술상이다. 이 같은 불교학술상은 한국불교학 위상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진국제학술상의 제정으로 한국불교학계는 주요한 학술상을 추가하게 됐다. 최근 이 같은 학술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국불교학회에선 월정사 등과 연계해 한암·탄허 학술상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발원한 성운학술상을 제정·운영 중이며 대한불교진흥원의 원효학술상, 대행선연구원의 묘공학술상 등도 유수의 학술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질의 불교학술상이 많아져야 새로운 불교학 연구자를 발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불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인재불사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팩스 031)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